

2026년 1월 28일

## | 경건의 시간 |

**마태복음 7:13~29**

13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멀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15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16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17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  
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20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1 나  
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 그 날에 많  
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  
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 그 때에 내  
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께서 떠나가라 하리라 24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5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6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27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28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29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아멘).

# | 맥체인 성경읽기 |

## 창세기 29장

1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2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  
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  
다가 3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  
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4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  
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5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6 야곱이 그들에  
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7 야  
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  
라 8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  
라 떼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  
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9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  
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10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  
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  
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 11 그가 라헬에게 입맞

추고 소리 내어 울며 12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

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13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들고 달려

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

로 인도하여 들이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14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

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

와 함께 거주하더니 15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

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16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

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17 레아는 시력

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18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칠 년을 섬  
기리이다 19 라반이 이르되 그를 네게 주는 것  
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  
으라 20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칠 년 동안 라  
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칠 년을  
며칠 같이 여겼더라 21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  
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22 라반이 그 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23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24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  
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25 야곱이 아  
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이까 26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27 이를 위하여 칠 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네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칠 년 동안 섬길지니라 28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칠 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29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30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칠 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31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 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32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33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 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34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35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

었더라

## 마태복음 28장

1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2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 내고 그 위에 앉  
았는데 3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 같  
이 희거늘 4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5 천사가 여  
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  
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을 내가 아노라 6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 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7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  
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  
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뵈오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  
렀느니라 하거늘 8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  
고 달음질할새 9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  
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  
을 붙잡고 경배하니 10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  
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  
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11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  
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12 그

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13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14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15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6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17 예수를 뵈옵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18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고 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  
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 에스더 5장

1 제삼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  
궁 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  
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2 왕후에  
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우므  
로 손에 잡았던 금 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  
가 가까이 가서 금 규 끝을 만진지라 3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4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5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  
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  
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6 잔치의 술을 마실 때  
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  
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  
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  
니 7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  
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8 내가 만일 왕의 목  
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  
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

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9  
그 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  
르드개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  
하나 10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  
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11 자  
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12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  
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  
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  
함을 받았느니라 13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  
개가 대궐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14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오십 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  
르드개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  
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 사도행전 28장

1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2 비가 오고 날이 차매 원주민들이 우  
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3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  
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4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  
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  
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5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  
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6 그들은 그  
가 붓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  
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  
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  
라 하더라 7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  
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  
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8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  
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  
에게 암수하여 낫게 하매 9 이러므로 섬 가운

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10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11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  
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12 수  
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13 거기서 둘러  
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14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례를 함  
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15 그 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압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16 우리가 로마에 들

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17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18 로마인은 나를 심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19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20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21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

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  
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22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  
떠한가 들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  
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23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  
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  
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24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  
도 있어 25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  
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  
도다 26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27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  
게 들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  
쳐 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28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  
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29 (없음) 30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  
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31 하나님의 나  
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